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훌륭한 지도자 예수



저자: Edward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각색: E. Frischbutter; Sarah S.

번역: Koh Woon Choi

Alastair Paterson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0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이셨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





예수께서는 공허히
여기며, 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지라도,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보실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촛불이 집안을
밝히는 것처럼
세상을
밝히라고
이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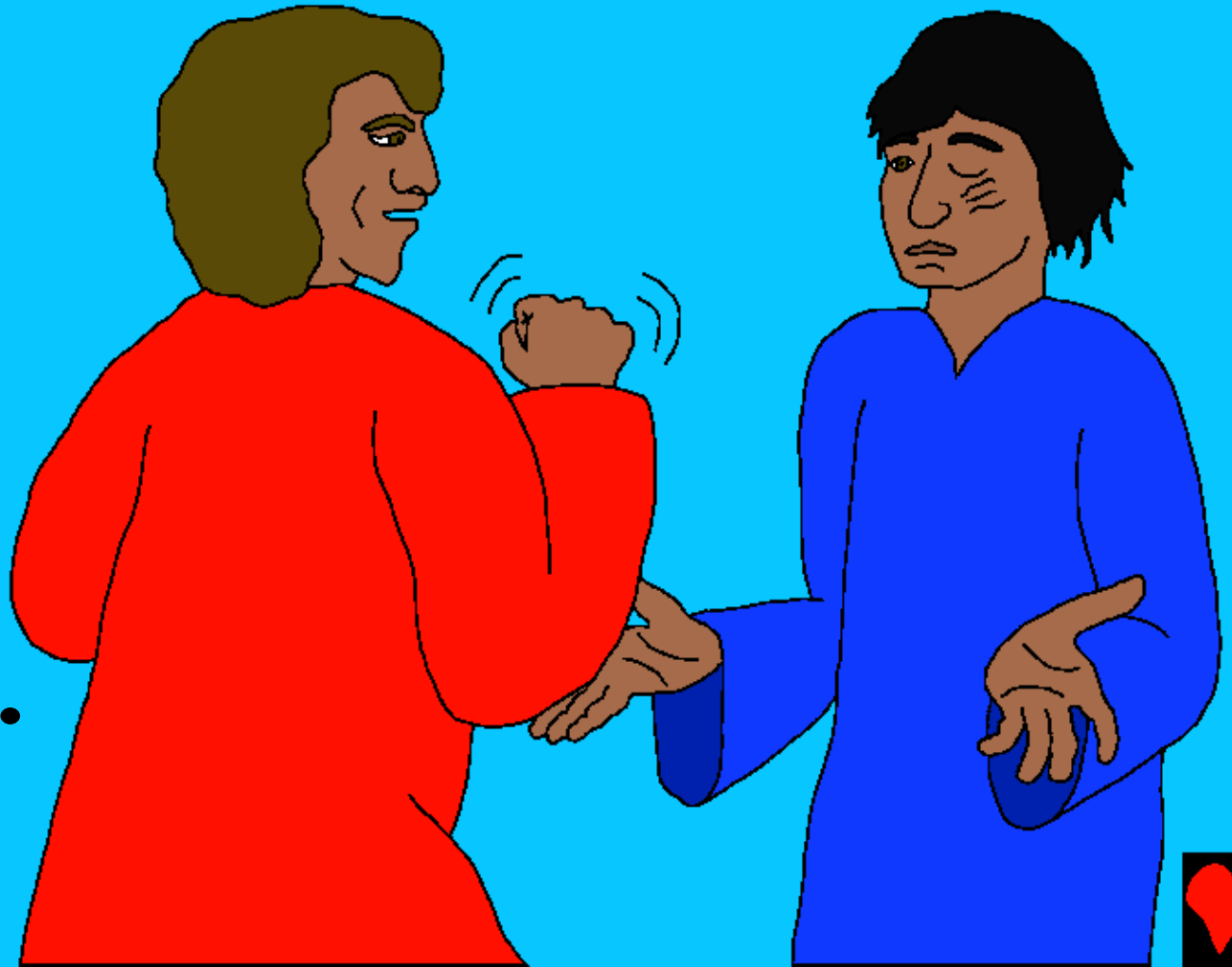


하나의
촛불이
방안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가!!



예수께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복수를
허용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예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
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시대에,
어떤 이들은 거룩한 것처럼
행했다.



그들이 구걸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그들은 나팔을 불며 모든
이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도록 했다.



“구제 할 때에
비밀리에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배부시리라,”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바쁜
길거리에서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만 신경 썼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짓
신앙인) 위선자라고
부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 자연을 자주 사용하셨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새를 지목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 새들도 먹이를
베풀어 주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주시리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백합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 땅을 잔디로 입히신다면,
너희들을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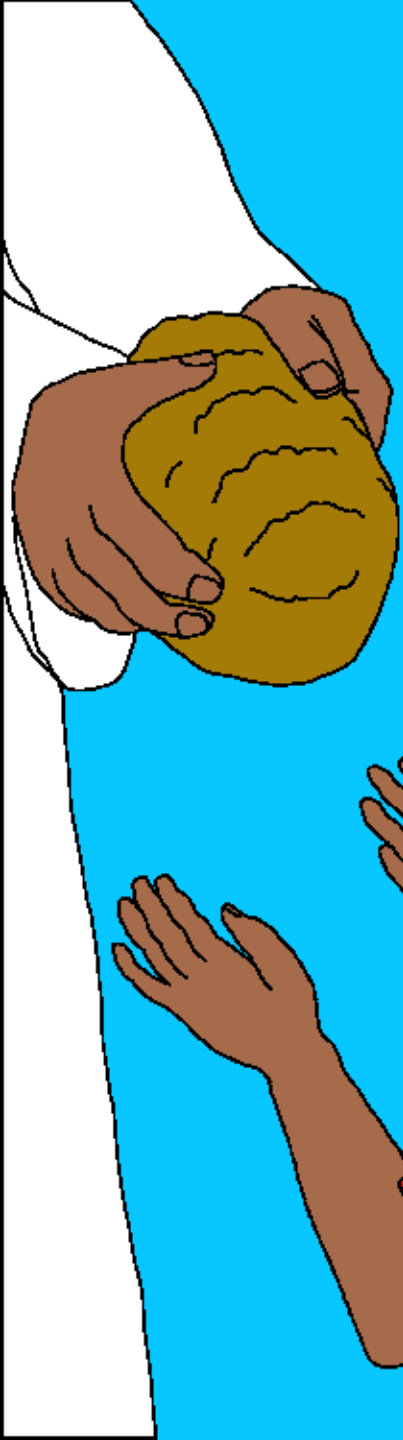


“만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의 뜻을
생각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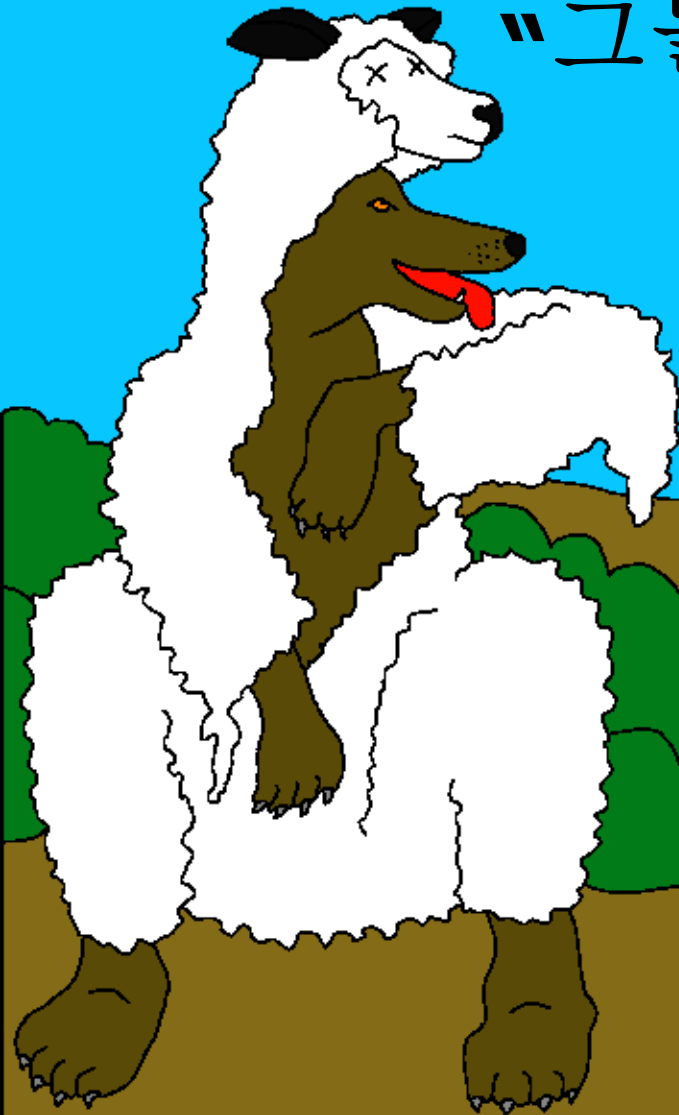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원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돌멩이를
줄까? 부모들은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훌륭한 지도자인 예수님께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셨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늑대이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화들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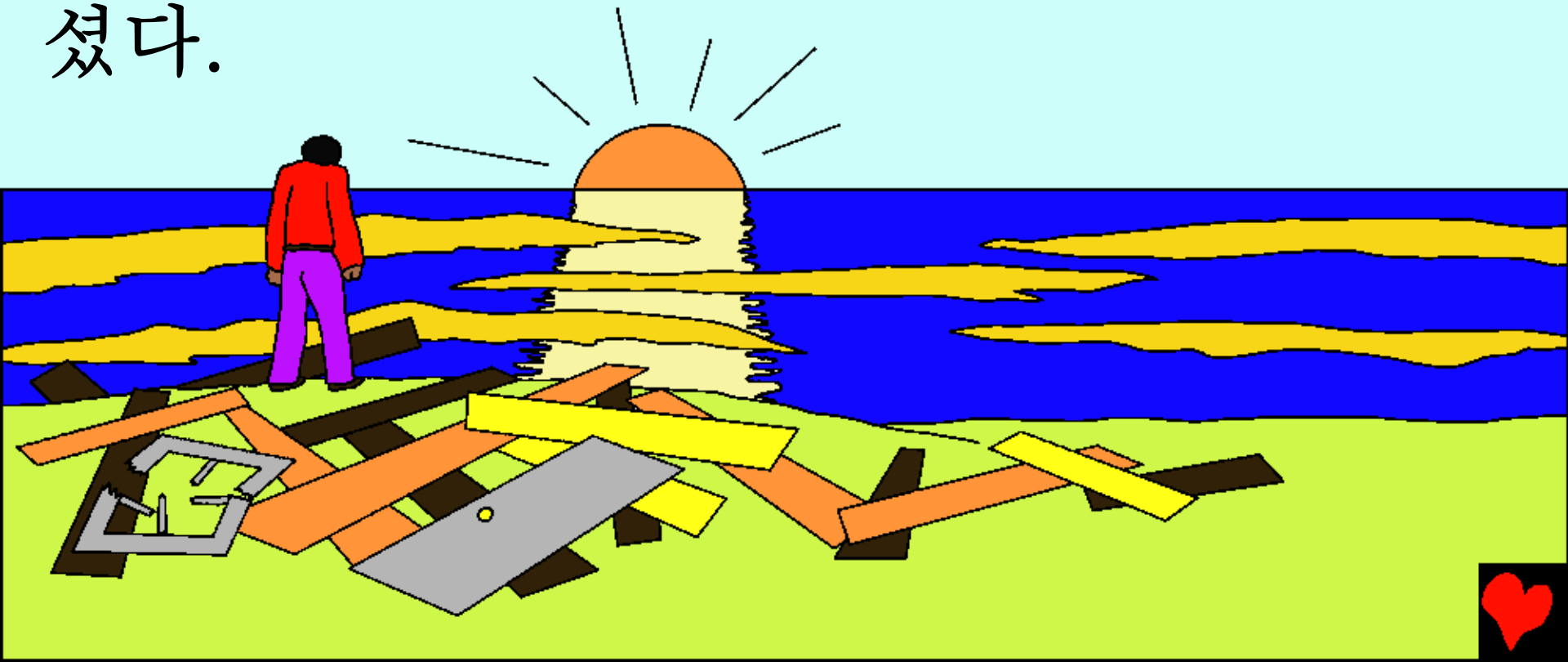
보여주셨다.



폭풍우가 몰아친 후, 반석 위에 집은
튼튼히 서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폭풍우가 다시 몰아쳤을 때, 약한 기초 때문에 무너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에 불 순종 하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 그들은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었던
말씀이었다.



이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매일 그 말씀에
복종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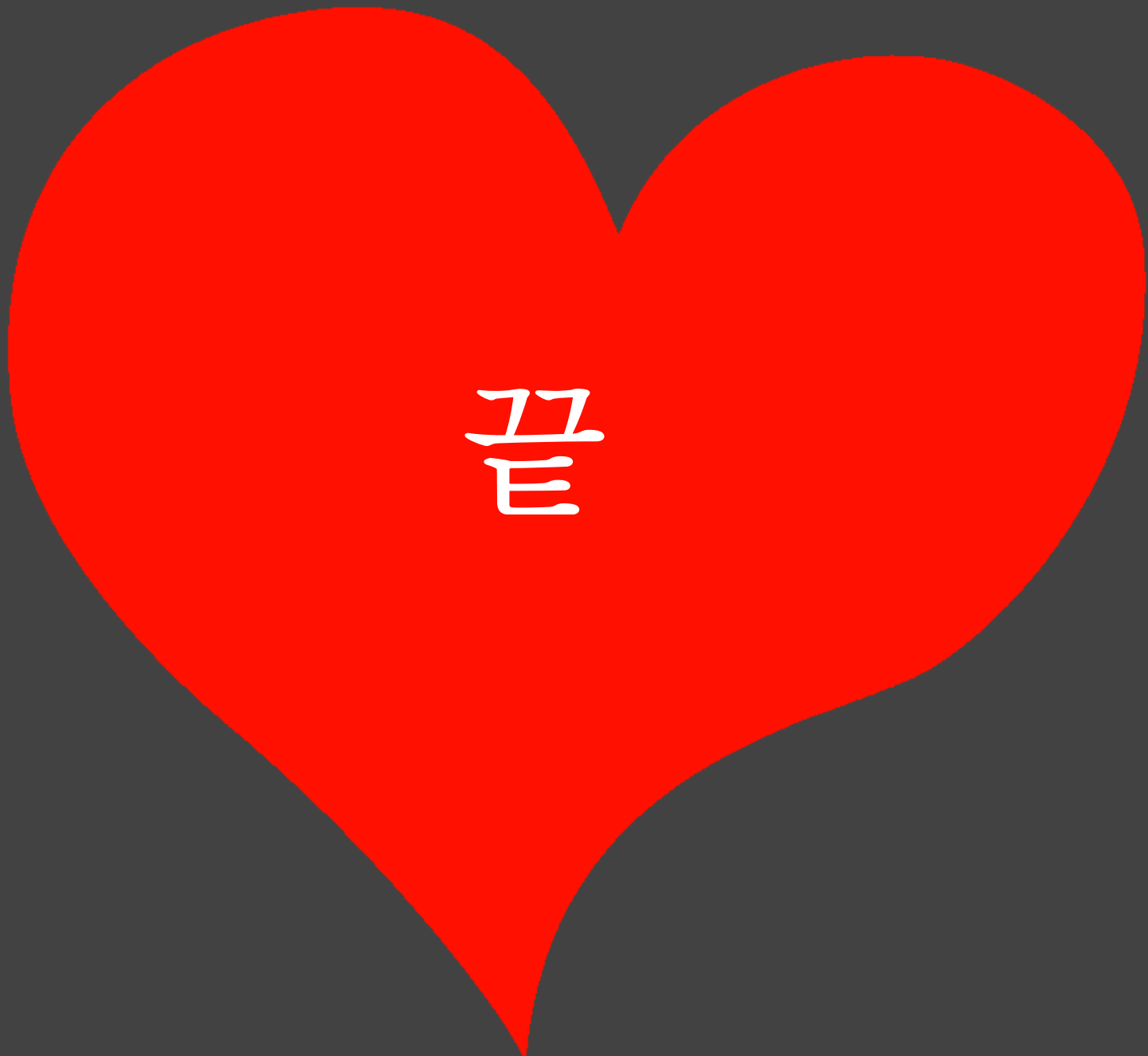
훌륭한 지도자 예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7, 누가복음 6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